

지역 매아리

김제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김제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적 주거 약자(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을 비롯하여 자활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 6.25환전용사 등)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장기간 무상임대 주택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오는 2월에 접수하여 현장조사 후 계획 물량인 106세대보다 16가구 많은 대상자(122가구)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 지붕개량공사, 창호공사, 도배·장판공사 등을 141동을 시행하여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줬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76가구에 24억9천9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총122가구에 4억2천4백만원으로 가구당 400만원으로 집수리를 하여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1:1 한의약 주치의제 운영

완주군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1:1 주치의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보건소는 의료 취약지역,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약 주치의제는 경로당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발굴해 1:1로 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이 돼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의료진은 매일 대상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검진을 물론 한의사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제 처방과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김경이 보건소장은 "찾아가는 한의약 주치의제를 통해 주민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건강교육과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의료사각지역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 눈앞

오는 7월중 예정... 주거·삶 조화 최적 인프라 평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오는 7월 분양공고를 위해 전국 권역별 투자유치 현장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로 타깃기업을 선정해 집중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박람회 참여, 완주군 정책사업과 연계된 관계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과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전라북도 소관부서, 완주군 연구기관, 관내 대표기업

들과 더불어 '완주군 투자유치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사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투자유치 홍보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우수 첨단창업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2021년 산업단지 준공 전 분양완료 목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30일 첫 삽을 뜬 이후 순조롭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초석이 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는

총 130개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6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다.

특히 52만평의 산업용지와 12만평의 미니복합타운으로 구성돼 주거와 삶이 조화롭게 정착된 최적의 투자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고재욱 군수 권한대행은 "완주군은 기업들에게 최적의 산업입지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확보와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완벽한 산업인프라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렴한 사람이 지역 맡아야"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 등록 마쳐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는 24일 김제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준배 후보는 공정한 인사, 정의로운 김제, 청렴한 지역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로 출마의지를 밝히며 '흐트러진 김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렴이 체질화된 정의로운 인물이 김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풍부한 35년의 도정경험



을 살려 정의로운 김제의 변화를 이끌 책임자임을 김제시민들에게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31일을 시작으로 '유세준비'와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 토론회를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 정책토론회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패기있는 혁신리더 절실"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등록 마쳐

민주평화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쳤다.

24일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제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후보는 "김제시는 지금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임 김제시장이 낙마하며 각종 현안 사업은 표류하고 있고 민심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사분오열 흩어져 있고 지역 경제 또한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기회의 변곡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정과 강령적 추진력을 가진 젊고 패기 있는 혁신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저는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지



난 12년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시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한껏 키워왔고 우리지역의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적 동반자라는 최

대 강점이 있는 준비된 큰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평화당은 경선에서 과열, 혼탁 경선이 아닌 아름다운 양보로 김제시장 후보가 정해진 만큼 끝까지 정책으로 인정받는 클린선거 문화를 김제시에 정착하고 싶다"면서 "이번 선거가 우리 김제시의 향후 발전을 좌우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으로 정성주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짧은 일정 이지만 농가에 힘 보태 보람"

김제시 기획감사실, 여성가족과, 만경읍 직원 '농촌일손돕기' 추진

김제시 기획감사실(실장 박민우)은 지난 23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산면 금산리의 버섯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 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실시됐다.

이날 직원들은 잡초를 제거하고 잡목을 정리하는 등의 봉사 활동으로 고된

구슬땀을 흘렸으며, 자체적으로 작업 도구와 새참을 준비하여 지원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다.

한편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신미란) 직원 25명은 24일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산면 인삼재배 농가를 찾아 꽃부족 농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 23일 직원 20여명이 금산면 금산리의 버섯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은 "비록 짧은 하루일정 이지만 조금이나마 농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보람이 됐다"며 일손 부족 농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제시 만경읍사무소(읍장

최병인)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일손에 도움이 되고자 24일 만경읍 대동리 이기원씨 농가를 찾아 사과수확 작업 등 농작업이 나서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돌발해충 협업방제 실시

완주군이 돌발해충 부화기를 맞아 협업방제를 실시한다.

완주군은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부화기를 맞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돌발해충(약충기) 협업

방제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완주군은 25일을 '완주군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읍·면별 자율공동방제단과 협업해 농지와 인근산림지 3323ha에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방제대상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다. 돌발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과 농경지를 넘나들며 임산물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동시에 방제를 추진해야 효과가 높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24시간 정신건강 '마음보안관'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관내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위기대응반의 조직개편 및 상근 인력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24시간 응급위기개입출동 시스템 '마음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문요원 및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마음보안관' 팀은 김제시민정신건강의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자살, 정신질환, 알코올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유관기관인 김제경찰서 및 소방서와 연계하여 즉각적인 응급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16건, 2017년 75건, 2018년 현재 39건의 실적을 올려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장 개입 시 위기분류척도

(CTRS)평가와 정신질환 현장평가를 통해 정신과적 위기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위기대응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응급위기개입 상황 종료후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치료연계, 정신건강상담, 재활 서비스, 가족교육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상담전화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와 김제시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대응반(063-542-1350)으로 상담 및 현장동행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 후 친구추가하면 온라인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gift sets.